

## 2015 6. 21 연중 제 12 주일

제 1 독서 : 욥 기 38,1.8-11 <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

제 2 독서 : 고린토 2 5,14-17 <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복 음 : 마 르 코 4,35-41 <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은 연중 제 12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서를 읽다보면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성적인 것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느님의 행동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생각하고는 어긋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 한사람과만 국한시켜 읽다보면 전혀 이해가 안될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구원사업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를 읽어 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서는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하고 우리를 갈라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지금도 분파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1 독서의 읍기도 읽어 보면 하느님께서 과연 공정하신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읍 자신도 “왜 나는 아무잘못도 안 했는데 이 벌을 받는가?” 하며 부르짖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3,4 학년때입니다.** 만 18 살의 저의 형님이 죽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고, 형은 장남이니까, 고등학교 2 학년을 중퇴하고, 동생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장사를 하다가 1 년뒤에, 인천에서 유명한 버스회사에 들어가서 정비를 일년 배우고, 첫 출장을 나가서 버스를 다 고치고 연장을 꺼내러 들어간 사이에, 점심을 끝내고 온 버스기사가 그냥 출발을 하는 바람에 버스에 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과연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오열을 하시며 통곡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가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이나? “하느님께서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기 전에 데려가셨다!” 저희 어머니는 그 아들만을 잃으신 것이 아닙니다. 일사후퇴 때에도 피난을 다니시면서 홍역을 앓고있던 아들 딸들을 잃으셨습니다. 과연 우리안에는 그런 신앙이 있는지? 형제 자매님들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나의 생명은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삶이 힘들어요. 고생스럽고, 짜증이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도 내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분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지금 저의 어머니가 병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번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 삶은 굉장히 굴곡이 심했습니다. 떼부자였다가 거지, 많은 자식을 두었다가 여럿을 잃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한번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사실은 그 분이 지금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왜 하느님께서 나를 거두어가시지 않으시는가?” 죽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생명이 바로 하느님것 이라는 것이 마음 깊숙히에 각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의 삶안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때에도 늘 의연하고, 태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 들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아파서 고통을 받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을 어떻게 빨리 끝내느냐 하면 바로 **신앙입니다. 하느님께 모든것을 의지하고 그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때문 입니다.** 자주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신부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신부가 8 년에서 10 년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신부가 되면! 내가 어렸을때 부터 생각했던, 물론 타의적인 것이 많았지요. 우선 저의 어머니가, 또 제가 말을 함으로써, 주변사람들이 너는 꼭 신부가 되어야만해! 하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신부만 되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에서 이번에 서품받는 신부님들의 느낌을 기재하였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 입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어린시절부터 10 년, 20 년을 기다려 신부가 되었을때, 그날은 행복한 것보다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강복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그날 솔찍히 제가 행복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저에게도 그날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날이 나날이!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바로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무엇을 바라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역할과 그 삶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자꾸만 열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국공동체뿐 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부의 차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돈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의 처해진 그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 그 분들은 가진 것이 남들보다 많은데도 계속 짜증과 불평과 불만과 고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 앞에는 단칸방에 사시는 마리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일흔정도는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분은 다른데로 절대로 안떠나신답니다. 이유가 무엇냐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당을 걸어서 다닐수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자식들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게 무엇냐?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님들! 그 분이 한번도 불평하는 것을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면,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며 산다면!** 그런데 그런 자세가 안나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머리가 좋고, 즉 나로 가득찬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졌고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의 고생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과연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행복하신가? 이 순간에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강론을 묵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바오로사도께서 정리를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말씀은 **우리는 이제 우리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분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험벳고, 나약하고, 능력 없는 것은 쓸모가 없다. 버려라!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역만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렵고, 험벳고, 버려진 자들을 관심을 두고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때에 우리는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왜 그런가? 이 미사중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본기도

주님,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어,  
성공에 자만하거나 시련에 절망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 제 1 독서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38,1.8-11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에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 1 참조)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항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독서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2 서 말씀입니다. 5,14-17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 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35-41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